

7월 10일(월) / 삼하16-20장

▶**내용요약:**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하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17장에서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은 자신이 세운 계락이 후세의 계락에 밀려 채택되지 않자 자살한다. 18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한다. 19장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20장은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지만 평정되는 모습이 기록된다.

▶**질문:** 길르앗 사람이며 부자로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를 공경한 사람은 누구인가?(19장)

▶**생각하기:** 다윗은 역모를 일으킨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18:33)이라며 탄탄한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인데도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한없이 슬퍼한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배반한 아들의 죽음도 한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7월 13일(목) / 왕상5-9장

▶**내용요약:** 5장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된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7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고 이어 성전에 구비된 기구들이 나열된다. 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봉헌식이 거행된다. 9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신다.

▶**질문:** 두로왕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백향목과 같은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5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축복하신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라**”(9:7)고 선언하신다. 성전 건축이나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보셨던 것이다. **우리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7월 16일(주일) / 왕상18-22장

▶**내용요약:** 18장에서 엘리야는 오바다와 만나 자신과 아합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한다. 이어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아 그들과 대결하여 승리한다. 이어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큰 가뭄이 멈춘다. 19장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고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받는다. 20장은 아람왕 벤하닷과 이스라엘왕 아합의 싸움을 다룬다. 아합이 승리하

7월 11일(화) / 삼하21-24장

▶**내용요약:** 21장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22장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이다.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서 볼 수 있다. 23장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24장은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3일간의 온역으로 7만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시로다”(22장)

▶**생각하기:**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37인의 명단과 그들이 행한 뛰어난 업적들이 열거된다. 이 기록을 통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런 인물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 **복음전도자로 부름 받은 여호와의 용사들**임을 기억하자. 충성스런 여호와와 용사들이 우리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 거룩한 전쟁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7월 14일(금) / 왕상10-13장

▶**내용요약:** 10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그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감탄한다. 1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긴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신다. 12장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다윗 집안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다. 13장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질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벧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 두었는가?(12장)

▶**생각하기:** 지혜로운 솔로몬과는 달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의 정당한 요구에 어리석은 답변으로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12:14)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집안 내력이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지만 그가 임의로 벤하닷을 살려주었기에 책망을 받는다. 21장은 아합이 이세벨의 모략으로 인해 비열한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 22장에서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아람과의 싸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질문:** 다음은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인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22장)

7월 12일(수) / 왕상1-4장

▶**내용요약:**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를 기록한다. 1장은 아도니야가 왕이 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 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을 위한 유언을 남긴다. 3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는다.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증명된다. 4장은 솔로몬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명단과 왕국의 영화로움이 소개된다.

▶**질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2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지혜를 구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모든 부와 영광도 허락하신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7월 15일(토) / 왕상14-17장

▶**내용요약:** 14장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통치와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를 소개한다. 15장은 유다의 아비얌과 아사, 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의 통치를 기록한다. 16장은 바아사 왕조의 몰락에서 아합의 통치까지 서술된다. 17장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

▶**질문:**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가지고 아사 왕이 지은 두 성읍은 어디인가?(15장)

▶**생각하기:** 16장 34절에 기록된 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와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하였다. 수백년 후에 이 저주가 히엘에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약속이 있다면 이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자. 인간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기:** 21장은 아합의 악행을 기록하면서 “에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21:25)고 한다. 아합의 악행이 아내 이세벨로 인한 것이었으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상대방에게 신실한 조력자인가? **우리 주위 사람을 돌아보자!!!**